

中國 아나키스트의
‘國家’와 ‘政黨’에 대한 論議
—吳稚暉·李石曾의 敎育運動을 중심으로

曹世鉉

머리말

1. 清末「新世紀派」에 나타난 ‘國家’ 및 ‘政黨’과 ‘敎育’에 대한 認識
 - (1) 新世紀派의 ‘國家’와 ‘政黨’에 대한 基本認識
 - (2) 敎育---아나키즘 실현을 위한 원동력
2. 民國 初期 新世紀派의 敎育運動과 政治參與論爭
 - (1) 進德會와 留法儉學會의 成立
 - (2) 張繼의 政治參與를 둘러싼 師復과 吳稚暉의 書信論爭(1913)
3. 中國 아나키스트의 敎育改革運動과 政黨加入論爭
 - (1) 軍閥政治 시기 留法勤工儉學運動과 北京大學 아나키스트 활동
 - (2) 吳稚暉와 沈仲九의 ‘國民黨’ 가입 論爭(1924)
4. 國民政府 시기 吳稚暉 李石曾의 아나키즘 활동
맺음말

머리말

중국 아나키즘 운동가들은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敎育을 통한 革命’이라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역사 사실에 기초하여 중국 아나키즘 敎育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준비되었다. 필자는 아나키즘 敎育 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서술하는 동시에, 특히 중국 아나키스트의 ‘敎育을 통한 革命’이란 방법론이, 아나키스트 내부의 논쟁과 분열을 일으킨 ‘國家’와 ‘政黨’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¹⁾

다만 이 글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이자 敎育 운동가인 吳稚暉와 李石曾의 사상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吳稚暉와 李石曾是 중국 최초의 아나키즘 단체인 『新世紀』派²⁾(혹은 파리 그룹)의 핵심 구성원이었으며, 중국 아나키즘의 원류를 『新世紀』에서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나키즘 활동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³⁾

그 기본적인 이유는 아나키즘이란 ‘小資產階級の 空想的 社會

- 1) ‘아나키즘’(Anarchism)이란 용어는 중국에서 ‘無政府主義’ ‘安那其主義’ 등으로 번역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구별 없이 쓴다.
- 2) 新世紀派란 프랑스에서 『新世紀』(1907-1910)라는 아나키즘 잡지를 창간하고 아나키즘을 중국인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한 집단을 가리키며, 吳稚暉·李石曾·褚民誼·張靜江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보통 新世紀派와 같은 시기에 조직되었던 일본의 『天義』派(혹은 동경 그룹)의 劉師培·何震 등과 함께 제1세대 아나키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 3) 吳稚暉와 李石曾의 아나키즘 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嵯峨隆을 들 수 있다. 그는 「辛亥革命前の李石曾--<新世紀>時期を中心に」(『石川忠雄教授還曆記念論文集--現代中國と世界』, 慶應通信, 1982), 「吳稚暉の出發」(『東亞』227, 1986), 「民國初年におけるアナキズム」(『アジア研究』37, 1990) 등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主義 思想'이라든지 '不穩한 社會主義 思想'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 이런 오해와 편견은 오랜 기간동안 중국 아나키즘 연구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왔으며, 吳稚暉나 李石曾에 관한 연구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중국 근현대사에서 아나키즘 운동의 위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개론서 성격을 띤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⁵⁾

필자는 吳稚暉와 李石曾이 아나키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사적 환경에서 中華民國이라는 '國家'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또 어떠한 이유로 國民黨에 가입하여 '政黨'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아나키즘 운동에 내재된 그들의 고유한 모순과 특성을 동시에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吳稚暉 및 李石曾의 사상과 활동 중 주로 '國家'와 '政黨' 인식에 관련한 자료와 사건 등을 검토함으로써 民國體制를 수용하게 된 배경과 國民黨에 가입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만 그들의 전체적인 '아나키즘' 운동상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서술 방법으로 新世紀派가 가장 정열을 기울였던 교육 운동을 시기별로 정리하면서 앞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겠다. 결국 吳稚暉 및 李石曾 등이 아나키즘을 실현하기 위해 전개한 교육 운동의

4) R.A.Scalapino, G.T.Yu, *The Chinese Anarchist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Press, 1961, 저자 서문 p.4.

5) 최근 중국 아나키즘에 대한 단행본 연구서를 소개하자면 徐善廣·柳劍平, 『中國無政府主義史』(湖北人民出版社, 1989); 路哲, 『中國無政府主義史稿』(福建人民出版社, 1990); 蔣俊·李興芝, 『中國近代的無政府主義思潮』(山東人民出版社, 1991); 湯庭芬, 『中國無政府主義研究』(法律出版社, 1991); Peter Zarrow, *Anarchism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Arif Dirlik,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1 등이 있다.

과정과 '國家' 및 '政黨' 인식의 변화 과정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 清末『新世紀』에 나타난 '國家' 및 '政黨'과 '教育'에 대한 認識

(1) 新世紀派의 '國家'와 '政黨'에 대한 基本認識

『新世紀』는 1907년 6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창간된 주간지(후에 월간)이며, '라 템포 노바' (La Tempo Nova)라는 에스페란토 부제를 달고 간행되었다. 1910년 5월 21일 정간하였는데 그 동안 모두 121회 발행되었다. 吳稚暉·李石曾·褚民誼가 편집을 맡았고, 張靜江이 재정을 담당하였다. 吳稚暉는 燃·燃料·夷·四無 등, 李石曾是 眞·眞民 등, 褚民誼는 民·千夜 등의 필명으로 글을 썼다. 『新世紀』의 사상적 특징은 科學主義를 보편의 진리로 인식하고 進化論을 무기로 중국의 封建主義, 傳統主義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데 있었다.⁶⁾

吳稚暉는 아나키즘에 대해 “無政府主義란 인민의 公德心을 환기시키는 것이며, 개인과 사회의 互助를 중시하는 것으로, 일체

6) 당시 프랑스는 서구에서 국제 아나키즘 운동의 중심지였다. 『新世紀』가 인쇄된 도시는 몽파르지(Montargis)로 급진적 사조가 팽배한 도시였다. 인쇄지의 중국 명칭은 中華印字局이고 위치는 파리의 브로카(Broca)路 4번지였다. 이 주소는 저명한 아나키스트 장 그라브(Jean Grave)가 발간한 기관지 '레 탕 누보'(Les Temps Nouveaux-신세기)가 인쇄된 곳으로 아나키스트들의 요람이었다. 이는 장 그라브 류의 프랑스 아나키스트와 파리 그룹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新世紀』의 제호가 '레 탕 누보'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아나키즘 운동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 인물은 엘리제 르클뤼(Elisee Reclus)인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크로포트킨의 친구였다. 그는 프랑스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에게 아나키즘을 전파하여 『新世紀』, 『工余』 등의 잡지 창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중국 아나키즘의 사상 원류는 엘리제 르클뤼와 장 그라브에 의해 번역된 크로포트킨의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 권리를 버리고 공동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⁷⁾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람들마다 眞理公道에 따른다면 治人과 被治者가 없게 되는데, 이를 無政府라고 부른다”고 전제하고, “無政府社會란 道德이 있을 뿐 法律은 없으며, 각자 能力에 따라 일하지만 義務가 아니며, 각자 必要에 따라 소비하지만 權利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⁸⁾ 그리고 李石曾도 아나키즘 이론의 특징을 自由, 平等, 博愛, 大同, 公道, 眞理, 改良, 進化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묘사하고, 아나키즘 사회를 ‘各盡所能 各取所需’라는 구절로 정의하였다.⁹⁾

新世紀派는 아나키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호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공격 대상으로 軍國主義, 祖國主義, 家庭主義, 私產主義, 宗教主義라는 다섯 가지 주의를 내걸었다. 파리의 아나키스트들은 『新世紀』를 통하여 이 五大主義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이 五大主義를 強權主義라는 말로 정리하고, 反對 強權主義란 용어로 자신들의 아나키즘 사상을 요약하였다.¹⁰⁾ 反家庭主義와 反宗教主義에 대한 글들은 전통과 봉건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글들이었다. 또한 아나키즘의 사회주의 성격을 반영하듯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反私產主義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주제인 ‘國家’ 및 ‘政黨’ 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내용은 反軍國主義와 反祖國主義에 관련된 글들이다.

新世紀派는 국가와 정부의 차이점에 대하여 뚜렷하게 구별하지

7) 吳稚暉, 「各盡所能與各取所需」, 『新世紀』 70호, 1908.10.24).

8) 吳稚暉, 「談無政府之閒天」, 『新世紀』 49호, 1908.5.30).

9) 李石曾, 「革命」, 『新世紀叢書』, 『新世紀』書報局, 1907) p.1.

10) 「本館廣告」, 『新世紀』 52호, 1908.6.20)에서 그들은 종교, 전통, 가족, 방종, 엘리트, 풍치, 군벌, 국가에 대해 반대할 것을 주장하고, 자유, 과학, 인도, 혁명, 공산, 국제 등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않았다. 그들은 '(國家와) 政府는 大同世界의 최대의 장애' 혹은 '어떤 형태든지 모든 (國家와) 政府는 自由와 平等의 敵'¹¹⁾ 이라고 동시에 비난하였다. 오늘날 이른바 정부라는 것은 인민의 대표 기구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이 조직한 단체에 불과하며, 특권층 스스로 자신에게 이로운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하여 사회를 운영하면서 이를 국가라고 칭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新世紀派에 의하면 국가라는 존재는 소수인이 다수인을 지배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¹²⁾ 資本主義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강한 종족이 약한 종족을 지배하는 구조이며, 그 사회는 특권층이 이익을 독점하고 인민을 해치는 사회이다. 이를 비호하는 기관이 현재의 정부이고 정부는 곧 국가를 대표하므로, 국가와 정부는 '萬惡의 根源'이라는 것이다.

파리의 ана키스트들이 타도해야 할 국가 및 정부의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淸王朝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淸朝의 전복은 곧 ана키즘 혁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新世紀』에는 淸朝 정부와 고위 관료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는 물론, 皇族의 무능과 부패를 조롱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淸朝에 대항하여 봉기를 시도하다 처형된 徐錫麟 秋瑾 등을 찬양하는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논조는 신해혁명 이전 해외에서 발간된 여러가지 혁명 선전들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新世紀派의 淸朝에 대한 깊은 증오심의 출발점이, 민족

11) 李石曾, 『來書(軍魂)附答』, (『新世紀』 6호, 1907.7.27).

12) 파리 그룹이 이상으로 하는 ана키즘 사회의 기본 단위는 個人이었다. ана키즘 사회란 개인이 다른 개인과 더불어 村을 이루고, 마을과 마을은 地方을 이루고, 지방들이 자유로이 연합하여 社會를 이루는 것이다. ана키스트들은 이러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며, 개인의 정상적인 相互交流, 相互扶助, 共同幸福이 보장된다고 보았다(李石曾, 『某氏與新世紀書附答』, 『新世紀』 8호, 1907.8.10).

주의적 정서에 입각한 다른 혁명적 지식인들과 달리, 국가라는 조직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비롯되었다는 뚜렷한 차이점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滿洲族 지배에 대한 漢族의 저항 의식의 산물로 清朝 전복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清朝라는 권위적인 국가 체제에 대한 반대라는 아나키즘적 이론선상에서 清朝 타도를 주장한 것이다.¹³⁾ 그들이 君主制에 대해 반대한 주요한 이론적 근거는 군주제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나키즘 혁명 --- 국가 혁명의 1차 목표가 清朝라는 왕조의 붕괴였다는 사실은 중국의 傳統과 封建社會에 대한 그들이 비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新世紀派은 국가 문제와 마찬가지로 政黨政治와 議會政治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은 대체로 代議制政治를 과거 專制政治에 못지 않게 나쁜 것으로 보았다. 전체 정치가 절대 소수에 의한 절대 다수의 지배 구조라면, 대의제는 다수의 지배 계급이 평민 일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결국 평민은 더욱 압박받는다는 아나키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褚民誼는 “소위 民權이란 사실상 富權이다. 民主가 최고의 平等이고 共和가 최고의 自由라고 여기는 것은 自由가 부유한 자의 自由이며 平等이 부유한 자의 平等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貧民이 곤경에 처했는데 자유 평등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¹⁴⁾ 이 주장은 대의제 선거를 통해 뽑은 의원 역시 진정한 인민의 대표가 아니고 부유 계층의 대표일 뿐이며, 이러한 대의제 정치는 사회의 불평등만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는 의원들이 제정한 법률도 전체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13) 李石曾, 「答勞觀子」, (『新世紀』 7호, 1907.8.3).

14) 褚民誼, 「仲論民族.民權.社會三主義之異同 再答來書論『新世紀』發刊之趣旨」, (『新世紀』 6호, 1907.7.27).

아니라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李石曾이 정당이나 의회를 기초로 한 공화제보다는 自由聯合形式의 아나키즘 사회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그러나 淸朝라는 봉건 왕조의 지배 아래 있던 중국은 전제 국가로 아직 정당이나 의회 정치가 발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부정하는 대의제 주장은, 앞서 혁명의 실제적인 대상으로 청조가 언급되던 것과는 달리, 당시의 중국 현실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즉 서구 아나키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혁명 이론의 선전 차원에서 제기되었을 뿐인 것이다. 서구의 아나키스트들이 어느 정도 정당 정치의 경험을 기초로 정당을 반대한 것과는 달리, 중국의 제1세대 아나키스트들은 정당 정치의 모순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政黨’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新世紀派의 아나키즘 수용 이유는 淸朝라는 봉건적인 전제 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의 성격이 강했으며, 反政黨의 동기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2) 敎育 --- 아나키즘 실현을 위한 원동력

新世紀派는 進化論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자연과 사회를 바라보고, 아나키즘 社會革命도 사회 진화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革命이란 進化와 改良에 대한 방해물을 없애는 것이고, 進化와 改良을 더욱 촉진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Revolution(혁명)을 Re-Evolution(진화의 연속)으로 파악하여 革命을 영원히 進化하는 자연계의 한 현상으로 이해한 것이다.¹⁶⁾

15) 李石曾, 『與友人論種族革命黨及社會革命黨』, (『新世紀』 8호, 1907.8.10).

16) 파리 아나키스트의 경우 革命과 改良이란 용어를 상호보완적인 의미로 쓰기도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고 있었던 新世紀派은 人性의 進化, 社會의 進化를 꾸준히 추구하여 이상 사회에 이르고자 하였다. 그들이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다름아닌 '敎育'이었다.

파리 아나키스트들이 '敎育'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는 그들이 주장한 혁명의 방법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淸王朝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사회 혁명의 수단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暗殺을 혁명의 중요한 한 가지 방법으로 보고 동시에 革命軍의 武裝蜂起를 통한 淸朝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였다.¹⁷⁾ 둘째, 會黨을 중심으로 한 平民의 투쟁을 통해서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總同盟罷業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⁸⁾ 셋째, 敎育을 통한 革命의 보급이다.¹⁹⁾ 서적이나 신문 매체 등을 통해 혁명을 선전하고 연설로써 혁명을 고취시켜 다수가 이를 공감하면, 점차 아나키즘 사회로 나아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의 몇 가지 방법 즉 暗殺, 革命軍의 武裝蜂起, 總同盟罷業을 통한 아나키즘 혁명은 新世紀派에게 가장 좋은 혁명 방법은 아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 혁명 선전의 하나로 敎育을 강조하여 아나키즘 사회 건설의 촉매제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수용하였다. 즉 도덕과 교육의 진보를 내용으로 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나키즘 사상 전파라는 틀 내에 폭력 수단을 종속시키는

하고, 또 어떤 경우엔 거의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일단 改良을 통한 목적의 달성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革命이란 必要惡의 방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현상을 進化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한 듯 싶다.

17) 一民來稿, 「知與行」, 《『新世紀』》 114호, 1909.10.16).

18) 反, 「去矣! 與會黨爲伍」, 《『新世紀』》 42호, 1908.4.11).

19) 吳稚暉, 「無政府主義以敎育爲革命說」, 《『新世紀』》 65호, 1908.9.19).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 혁명이 폭력에 의한 즉각적인 국가 소멸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혁명을 進化 및 改良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던 앞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新世紀派의 중요한 특징이다.

혁명 방법과 관련한 대표적인 주장은 吳稚暉의 「無政府主義는 敎育으로 革命을 이루는 說」이라는 문장이다. 이 글에서 그는 “중국이 社會革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혁명 사상을 선전해야 하는데, 교육 수단을 통하여 혁명 진리를 전파하면 사람들마다 社會革命의 필요성을 자각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비유하여 그는 “革命書報를 전파하는 것은 敎科書를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²⁰⁾ 그 밖에도 여러 편의 글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各盡所能與各取所需」라는 글에서 吳稚暉는,

“無政府主義 革命이란 敎育으로 革命을 제창하는 것이요, 敎育으로 革命을 준비하는 것이다. 즉 (敎育으로써) 革命을 이루려는 것이다. 사실상 매일 매일의 敎育이 매일 매일의 革命인 것이다. 敎育의 효과가 (비교적) 적어서 사회의 작은 습관만을 고칠 수 있다면 이는 작은 革命이다... (그리고) 敎育의 효과가 커져서 전체적으로 낡은 습관이 바뀔 수 있다면 이것이 곧 큰 革命인 것이다.”²¹⁾

라고 하였다. 그는 혁명 과정에 작용할 교육의 선전 효과와 그 결과에 주목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혁명이란 갑작스럽게 이루

20) 吳稚暉, 앞의 글, 『新世紀』 65호, 1908.9.19).

21) 吳稚暉, 「各盡所能與各取所需」, 『新世紀』 70호, 1908.10.24).

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을 조금씩 改良하는 과정에서 준비되는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중요시하는 吳稚暉의 자세는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그의 '教育으로 (아나키즘) 革命을' 이루려는 생각은 프랑스에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후 갑작스레 돌출한 것이 아니다. 그 근원은 清末 中國教育會나 愛國學社 등의 排滿教育運動 시기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吳稚暉의 이러한 생각은 다른 아나키스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李石曾은 "社會를 改良하는 방법은 公理를 전달하고 知能과 科學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²²⁾고 하였으며, 褚民誼 역시 "教育이란 사실상 人力進化的 原動力"²³⁾ 이라고 보아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아나키즘이란 敎育으로 이루는 革命이라는 논조 아래 '(無政府 실현은) 敎育이 적극적인 방법이요, 革命이 소극적인 방법'이라고까지 말하였다.²⁴⁾

크로포트킨의 아나르코 코뮌리즘(無政府共產主義) 이론에서도 인간의 도덕을 향상시키는 비폭력적인 교육 수단과 총파업이나 무장 봉기와 같은 폭력적인 혁명 수단을 아나키즘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新世紀派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전자의 방법이 중국 혁명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사회 변혁의 방법과 변혁 주체의 창출에는 敎育運動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吳稚暉·李石曾은 모두 敎育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온건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들이 民國의 정치 체제를 수용한 이후 아나키즘 운동을 敎育運動의 차원에서 전개한 이유도

22) 李石曾, 「談學」, (『新世紀』 7호, 1907.8.3).

23) 褚民誼, 「無政府說」, (『新世紀』 35-36호, 1908.2.22, 2.29).

24) 褚民誼, 「無政府主義于敎育與革命」, (『新世紀』 47호, 1908.5.16).

바로 그러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2. 民國 초기 新世紀派의 教育運動과 政治參與論爭

(1) 進德會와 留法儉學會의 成立

1911년 武昌의 봉기를 도화선으로 辛亥革命이 일어났다. 新世紀派가 말한 '排皇革命'이 일어나 清朝의 붕괴가 이루어진 것이다. 新世紀派의 구성원은 이 사건을 전후로 모두 귀국하였다. 清朝가 물러나고 中華民國이라는 新政府가 들어서자 그들의 관심은 궁극적인 혁명인 社會革命에 모아졌다. 그런데 아나키즘 이상의 실현과 관련하여 民國初의 新世紀派는 아나키즘 운동의 전개 방법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즉 아나키즘 원칙에 충실하여 共和體制 성립 후에도 反權力鬭爭을 계속하여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돌진하느냐, 아니면 공화 체제를 아나키즘 이상에 도달하는 하나의 단계로 설정하여 그 존재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느냐의 문제였다.²⁵⁾ 新世紀派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이 건립된 民國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民國을 건설하며 大同, 즉 아나키즘 사회로 나아간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²⁶⁾

辛亥革命 직후 李石曾은 1911년 11월 北京에서 汪精衛 등과 「京津同盟會」를 결성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단체는 袁世凱 암살 기도 사건과 宗社黨 우두머리인 良弼을 암살하는 데 관여하였다.²⁷⁾ 또한 그는 孫文으로부터 駐佛公使로 취임할 것을 요

25) 嵯峨隆, 「民國初年におけるアナキズム」, 『アジア研究』 37, 1990, p.36.

26) 李石曾, 「雙十節附帶三十節之瑣談-國父與稚老」, 『李石曾先生文集』 下, pp. 91-93.

27) 李石曾, 「關於社會改良會發起之經過」, 『李石曾先生文集』 上, p.425.

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이른바 직접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不官主義를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그는 비록 공개적으로 아나키즘을 선전하지는 않았으나 아나키즘 원칙을 비교적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吳稚暉는 1912년 1월 귀국 후 그 해 열렸던 中國社會黨 집회의 강연에서 아나키즘을 선전하고 軍國主義와 愛國主義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고, 이 때 아나키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敎育의 改革을 강조하였다. 그는 젊은 아나키스트가 다수 참여하고 있었던 中國社會黨이 의회 정당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고 아나키즘 보급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²⁸⁾ 吳稚暉는 民國의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나 李石曾과 마찬가지로 不官主義의 원칙 아래 활동하고 있었다. 파리 아나키스트의 또 다른 멤버인 褚民誼와 張靜江도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辛亥革命 이전부터 新世紀派와 돈독한 친분을 형성했던 蔡元培는 孫文에 의해 교육청장에 임명된 뒤, 본격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의 교육 운동에 참가하여 각종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²⁹⁾

『新世紀』 시절 李石曾의 革命段階論이나 吳稚暉의 同盟會 및 三民主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등이 民國의 정치 체제에 대한 수용으로 표면화되면서 그들의 아나키즘 이론에서 反國家·反政治와 같은 원론적인 아나키즘 요소는 제거되었다. 그렇지만 그들

28) 『吳稚暉之社會主義談』, 『天聲』 1집, 1912(葛懋春, 蔣俊, 李興芝 編, 『無政府主義資料選』).

上, 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4, pp.338-342). 앞으로 葛懋春, 蔣俊, 李興芝 編, 『無政府主義 資料選』의 경우 『資料選』으로 약칭함.

29) 당시 蔡元培는 '生物의 進化는 競爭이 아닌 互助에 있으며, 아무리 강한 것도 고립되면 실패한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의 階級鬭爭論보다 크로포트킨의 互助論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蔡元培, 『我之歐戰觀』, 『蔡元培全集』3, p.4).

은 철저하게 정치와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不官主義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처럼 民國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귀국했을 때 당장 국가를 대체할 만한 사회적 장치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아나키즘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파리의 아나키스트들은 곧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인 사회 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辛亥革命 이후 新世紀派 아나키스트들이 결성한 대표적인 단체의 하나는 「進德會」였다. 1912년 2월 하순 南北和議가 성립된 후 上海에 모인 李石曾과 吳稚暉는 張繼·汪精衛 등과 함께 도덕 계몽 단체인 進德會를 발기하였다. 당시 규약은 吳稚暉가 기초하였다. 吳稚暉의 판단에 따르면 清朝의 부패와 멸망은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국에 가장 널리 퍼져 있던 사회악은 賣淫·賭博·蓄妾 제도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進德會의 규약은 이 문제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進德會의 조직은 크게 普通會員과 特別會員으로 나뉘었다. 보통 회원에게는 賣淫·賭博·蓄妾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 회원은 다시 甲·乙·丙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甲種會員은 보통 회원의 세 가지 계율 이외에 「官吏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乙種會員은 앞의 네 가지 계율 이외에 「議員이 되지 않는다」, 「吸煙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丙種會員은 앞의 여섯 가지 계율 이외에 음주를 금지하고 육식을 금지하는 규정이 첨가되었다.³⁰⁾ 進德會는 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였는데, 처음 구성될 당시 보통 회원은 蔡元培·章士釗 등 22명, 갑종 회원은 張繼·張靜江·戴季陶 등 11명, 을종 회원은 汪精

30) 「發起「進德會」會約」, 『李石曾先生文集』上, pp.175-182.

衛·褚民誼 등 8명, 병종회원으로는 李石曾·吳稚暉 등 4명이 가입하였다.

進德會은 파리 시절 李石曾이 몸소 실천한 채식주의와 흡연·음주·도박의 금지와 같은 금욕적인 생활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新世紀』의 전통과 종교에 대한 반대 주장에서도 봉건적인 미신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보다 '道德'을 중시하였고, 도덕의 진보를 정치적 변화보다 우선시하였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民國初 進德會가 성립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進德會가 최종적으로 8개의 계율을 내걸었기에 사회에서는 '八不會'라고도 불렀다.

이 운동을 시작으로 「社會改良會」, 「六不會」, 「心社」라고 불리는 유사한 조직들이 차례로 결성되었다. 그 가운데 六不會는 蔡元培를 단장으로 한 袁世凱 환영 사절단이 북상 중에 배 위에서 동행인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던 단체인데, 八不會에서 나타나는 '官吏가 되지 않는다', '議員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외시키고, '賂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시키고 있다. 六不會의 경우 정치인을 대상으로 조직하였기 때문에 정치 조직 및 정치 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대신 '賂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관리로서의 청렴을 강조한 것이다.³¹⁾ 八不會에서 나타나는 反政治主義 색채가 다소 완화되어 정치가들에게 적용된 것이 바로 六不會인 것이다.

아나키즘은 일반적으로 철저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금욕적인 생활을 엄격히 실행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부패를 비판하는 것과 서로 통한다. 進德會의 도덕 운동은 바로 이러한 아나키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혁명과 더불어 새롭게 건설해야 할 과제인 사회의 도덕 개조 문

31) 李石曾, 「關於社會改良會發起之經過」, 『李石曾先生文集』上, pp.424-425.

제를 정권에 의해서가 아닌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창출하려 한 것이다.³²⁾

民國初 進德會와 같은 계몽 운동 이외에 新世紀派가 만든 단체로는 「留法儉學會」가 있다. 이 단체는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인 1912년 2월 吳稚暉·李石曾·張繼·張靜江·褚民誼 등이 조직한 것으로서 중국 젊은이들을 프랑스에 유학 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결성되었다.³³⁾ 留法儉學會는 '사회를 개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教育에 있다'는 이념 아래 이른바 '勤于做工, 儉以求學'을 방법으로 하여 최초로 勤工儉學運動을 전개하였다. 이 유학 운동은 일종의 교육 개혁 운동이었고, 그 목적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인물의 육성에 있었다.

進德會와 마찬가지로 '勤工儉學'의 기원은 바로 李石曾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파리 시절 자신이 경영하던 豆腐公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평소에는 일하고 여가 시간에는 프랑스어, 중국어, 일반 과학 지식 등을 공부하는 '苦學生活'을 직접 실천한 적이 있었다. 이 때 그는 적은 돈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勤工儉學의 방법을 창안한 것 같다. 사실 李石曾 자신이 중국인 중 가장 일찍 프랑스로 유학을 온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吳稚暉도 清末 이래 '苦學'의 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³⁴⁾ 영국 망명 시절 이미 고학의 경험이 있었다. 吳稚暉나 李石曾是 중국을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국민으로 개조하려 할 때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프랑스라고 믿었다.

留法儉學會는 1912년 5월 北京에 유학생을 위한 예비 학교를

32) 有田和夫, 「清末におけるアナキズム」, 『東方學』 30, 1965, p.86.

33) 李石曾, 「留法儉學會緣起及會約」, 『李石曾先生文集』 上, pp.212-214.

34) 吳稚暉가 프랑스 유학 준비중인 李石曾을 만났을 때, 그는 外國 留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勞動하며 工夫하는 苦學의 方法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李石曾, 「談吳稚暉蔡子民兩先生」, 『李石曾先生文集』 下, p.111).

개설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吳玉章 등을 중심으로 四川儉學會가 조직되었고, 成都에서 豫備學校가 조직되었다. 그 해 11월, 유학생 1기와 2기 학생들을 프랑스로 보냈고, 다음 해 6월에도 다시 3기 학생들을 보내었다. 이 운동은 교육 청장이던 蔡元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즈음 李石曾 등은 上海에서 勤工儉學運動을 지원할 목적으로 아나키즘 색채를 띤 「世界社」를 다시 조직하였다.³⁵⁾ 이 운동은 훗날 留法勤工儉學運動으로 발전하여 新文化運動 시기 新世紀派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進德會와 留法儉學會는 비록 뚜렷하게 아나키즘 혁명을 주장한 단체는 아니었으나 중국인들에게 아나키즘의 이상을 전파하기 위한 대중 운동의 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도 전에 袁世凱 정권의 탄압으로 모두 좌절되었으며 단발의 시도로 끝났다.

(2) 張繼의 政治參與를 둘러싼 師復과 吳稚暉의 書信論爭(1913)

吳稚暉와 李石曾의 民國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개량주의적인 운동 노선은 원론에 충실한 젊은 아나키스트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이들 혈기왕성한 아나키스트들은 도덕의 계몽이나 유학을 통한 인재의 양성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만으로는 혁명의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갈등은 아나키스트 내부의 논쟁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 논쟁의 주역은 제2세대 아나키스트의 대표적 인물인 師復이었다.

35) 李石曾은 「與吳稚暉等發起世界社之意趣及簡章」에서 世界社의 활동으로 書報·研究·留學·宣傳 등을 들고 있다. 留學방면으로는 留法儉學會·勤工儉學會·互助社 등의 단체가 있고, 宣傳방면으로는 進德會와 社會改良會 등의 단체가 있다고 하였다(「與吳稚暉等發起世界社之意趣及簡章」, 『李石曾先生文集』上, pp.218-220).

중국 아나키즘 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인물로 알려진 師復은 본래 清末 新世紀派 사상의 영향을 받아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그는 辛亥革命 직후부터 「晦鳴學舍」나 「心社」와 같은 아나키즘 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제1세대 아나키스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아나키즘의 원칙을 충실히 고수하여 民國 체제 자체를 부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師復이 정치와 권력을 거부하고 더욱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袁世凱의 독재는 물론 孫文의 國民黨이나 江亢虎의 社會黨 노선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을 전개한 사실들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³⁶⁾

師復은 민국의 각종 정치 파벌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제1세대 아나키스트의 정치에 대한 접근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일찍이, “우리는 吳稚暉 선생이 無政府主義의 선봉장으로 아나키즘을 선전하길 기다렸으나 평담을 일삼고 적극적인 고취를 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³⁷⁾고 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師復은 進德會나 留法儉學會와 같은 소극적 운동만으로는 아나키즘의 이상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가 제1세대 아나키스트와 논쟁하게 된 직접적인 도화선은 吳稚暉 李石曾 등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아나키스트로 활동하던 張繼가 정계에 진출한 사건 때문이었다.

清末 누구보다 과격한 혁명 분자의 한 사람이었고, 民國初 進

36) 師復은 孫文의 民生主義를 國家社會主義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국가 권력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孫文이 말하는 국유화 정책을 사회주의라 한다면 清朝 정부와 袁世凱 정부의 국유화 정책도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 江亢虎의 中國社會黨에 대해서도, ‘黨의 강령이 사회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 정책 등 여러 주장이 개량적인 사회 정책만도 못하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師復, 「孫逸仙江亢虎之社會主義」, 『民聲』 6호, pp.1-7).

37) 師復, 「答道一書」, 『民聲』 3호, p.12.

德會 발기인이자 留法儉學會를 지원하고 있었던 張繼가 정치에 참여하려던 배경에는 袁世凱 정부를 전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는 이미 아나키즘이 현재의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張繼가 參議院에 참가하여 의장으로 취임하자 이 문제는 곧바로 師復의 비판을 일으켰다. 師復은 1913년 5월 張繼와 吳稚暉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어 張繼의 정치 참여를 공격하였다. 그는 張繼에게 보낸 글에서 '無政府主義는 정치라는 것이 사회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기본 신념으로 한다. 선생(張繼)이 과거에 無政府主義를 주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홀연히 정계에 투신한 것은 과거의 사상을 버리고 변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다시 '선생(張繼)은 進德會의 발기인이자 丙種會員으로 官吏나 議員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中華民國 參議院 의장이 된 것은 스스로 進德會의 병중 회원 자격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질문하여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³⁸⁾

師復은 吳稚暉에게 보낸 글에서도 '張繼가 參議院에 참가하여 의장으로 취임한 것은 아나키즘의 뜻에 배치되며 進德會의 규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張繼 선생은 곧 바로 참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한 아나키스트임을 부인하고 변절하였으니 進德會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하고 동시에 동지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하며 吳稚暉가 張繼에게 참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³⁹⁾

하지만 師復의 비판에 대하여 吳稚暉가 張繼를 옹호하고 나섬으로서 이 편지는 張繼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아나키스트 내부

38) 師復, 「再致吳稚暉書」 중 「致張繼書」 내용(『晦鳴錄』 2호), p.10.

39) 師復, 「再致吳稚暉書」 중 「致吳稚暉第一書」 내용(『晦鳴錄』 2호), pp.9-10.

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논쟁은 師復의 질의 서신에 대한 吳稚暉의 답장 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晦鳴錄』에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비록 소규모의 논쟁이었으나 이 논쟁은 많은 아나키스트에게 영향을 미쳤다.

吳稚暉는 변호의 글에서 먼저 師復이 進德會의 규약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규약에 대한 설명을 한 후, 進德會 성립 시기에 張繼가 參議員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더구나 進德會에서 張繼는 乙種會員이 아니라 甲種特別會員이므로 進德會의 올종 회원에게 적용되던 ‘議員이 되지 않는다’는 규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⁴⁰⁾ 덧붙여 張繼가 가입한 六不會도 ‘官吏가 되지 않는다’, ‘議員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張繼의 의회 진출은 進德會 六不會의 규약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⁴¹⁾

이러한 답변에 대해 師復은 만족하지 않고 다시 편지를 써서 吳稚暉가 張繼의 사상과 행동간에 모순 문제를 해명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師復은 張繼가 ‘중국은 오늘날 아나키즘 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아나키즘은 世界主義이므로 이 나라에는 적용되고 저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사상은 아니다’라고 단언하였다.⁴²⁾ 뿐만 아니라 師復은 제1세대 아나키스트의 운동 방식과 그들의 사상 수준에 대해서조차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吳稚暉에 대해서도 “國民黨 주변을 맴돌며 나날이 政黨에 접근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에 이르렀다.⁴³⁾

40) 吳稚暉, 『吳稚暉答書』(『晦鳴錄』 2호), p.10.

41) 吳稚暉, 앞의 글, p.10.

42) 師復, 『再至吳稚暉書』(『晦鳴錄』 2호), pp.8-9.

43) 師復은 “近日 半面的 社會主義를 좋게 말하는 자는 왕왕 정치의 능력을 빌어 사회주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거짓 주장은 사회주의의 오점이기에 족하다. 張繼와 吳稚暉는 모두 중국에서 無政府主義를 일찍이 선전

이에 대해 吳稚暉는 신문 지상에 글을 발표하여, '張繼가 進德會의 乙種會員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나 개인적으로는 張繼가 甲種會員으로서 정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기술함하여 張繼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해 분명한 지지의사를 밝혔다.⁴⁴⁾

앞의 서신 논쟁을 통하여 우리는 吳稚暉의 '國家' 및 '政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당시 吳稚暉가 『民立報』 등에 기고한 몇 편의 글을 분석해 보면 그가 '國家' 및 '政黨'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아나키즘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는 '國家' 문제와 관련하여 '民國은 滿清 정부와는 달리 公共의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난동과 파괴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 체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동시에 共和制에 대해서도 '비교적 좋은 제도이며 사회 발전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언급하였다. 吳稚暉는 '政黨' 문제에도 단도직입적으로 '民國의 정치에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 즉 '政治나 政黨이 미래에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더라도 현재의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⁴⁶⁾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정당을 정부가 존재하는 시대의 必要惡으로 해석하여 아나키즘의 사상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나키즘의 이념과 정당 활동 용인 문제의

한 사람들로 수년간 『新世紀』에서 전개한 논지는 격렬하였다. 그러나 張繼는 이미 議員이 되고 吳稚暉도 國民黨의 주변을 맴돌며 政黨에 날로 접근하고 있으니 社會黨·無政府黨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 無政府를 주장하는 자가 有政府의 전부를 주장하는 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記者(師復-필자)는 無政府를 위하여 비통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師復, 앞의 글, p.7.).

44) 吳稚暉, 「可以止矣(續)」, 『民立報』.

45) 吳稚暉, 「書某報短評後」, 『民立報』, 1912. 6. 24.

46) 吳稚暉, 「致江亢虎討論政黨函」.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⁴⁷⁾

師復과 吳稚暉의 논쟁에 대하여 李石曾은 일체 말이 없었으며,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李石曾과 師復 사이에도 서신을 통한 왕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논쟁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주로 아나키즘 운동의 실천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었다. 李石曾은 師復에게 敎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勞動組合을 성급하게 조직하기보다는 먼저 勞動者에 대한 敎育 사업에 착수할 것을 충고하였고,⁴⁸⁾ 師復은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 李石曾을 선구적 아나키스트로 높이 평가하고 '선생(李石曾)은 최근 과학 敎育과 주의 선전을 하는 데 노력한다'고 칭송하였다.⁴⁹⁾

李石曾의 회고 중에 '張繼가 지나치게 정치에 접근하여 타락하였다'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그는 張繼의 정치 참여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 듯 하다.⁵⁰⁾ 또한 李石曾은 吳稚暉에게 '政治에 대한 접근 경향과 敎育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다.⁵¹⁾ 하지만 그의 편지가 吳稚暉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李石曾은 吳稚暉와 師復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듯 싶다.

3. 중국 아나키스트의 敎育改革運動과 政黨加入論爭

(1) 軍閥政治 시기 留法勤工儉學運動과 北京大學 아나키스트 활동

47) 吳稚暉, 「續政府問題」, 『民立報』, 1912. 7. 26.

48) 李石曾, 「眞民先生與師復書」(『民聲』 6호), p.11.

49) 師復, 「眞民先生與師復書」의 師復附識(『民聲』 6호), p.11.

50) 李石曾, 「談新年」, 『李石曾先生文集』 下, p.86.

51) 李石曾, 「談雜誌譯書及敎育致吳稚暉函」, 『李石曾先生文集』 下, p.316.

民國 초기 共和制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각종 政黨들의 권력 투쟁은 정치와 사회 여러 분야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고, 오히려 袁世凱의 독재 체제를 성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國民黨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反袁世凱 연합을 형성한 반대파들은 1913년 9월 봉기를 일으켰다. 袁世凱 정권에 대한 무장 투쟁이 실패로 막을 내리자 反袁世凱 운동에 동참하던 제1세대 아나키스트들은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외로 도피하였다. 즉 吳稚暉는 영국으로, 李石曾은 프랑스로, 蔡元培는 독일로 각각 이주하여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망명 시기의 李石曾은 정치보다 교육을 더욱 중시하였고, 사회혁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요긴한 것이 교육 운동이라고 다시금 확신하였다. 그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學'의 差別에서 온다고 보고, 學을 均等하게 하는 것이 곧 敎育이라고 생각하였다. 과학과 학문을 발전시키고 계급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고, 그러한 교육의 1차적 대상은 노동자와 지식인이었다. 吳稚暉의 경우, 아나키즘을 당장 실현시킬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敎育을 통한 革命'이라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사회에 대한 점진적인 개량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李石曾의 교육 운동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교육 수단 못지 않게 여전히 袁世凱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 수단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袁世凱의 독재가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平民의 의식 정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젊은이들을 구미 각국에 유학시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平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시작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

상이 나타났고, 노동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 아래 1915년 여름 吳稚暉·李石曾·張靜江·吳玉章 등은 프랑스에서 「勤工儉學會」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이었는데, 청년들에게 노동하며 공부하는 '半工半讀'의 방법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아나키즘 사상을 전파하였다. 李石曾 등은 다시 1916년에 「華法教育會」를 설립하여 프랑스에 있던 중국인 노동자의 교육과 취업을 도와주었다. 이 단체들은 파리에서 「旅歐雜誌」(1916-)와 「華工雜誌」(1917-) 같은 간행물을 출판하였는데, 모두 '勞勤과 學習의 결합'을 선전하고 있었다.⁵²⁾

1915년 新文化運動이 시작될 무렵 중국에는 袁世凱 정부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新世紀派 출신의 아나키스트 그룹과 師復이 죽은 후 그를 계승한 廣州 지역의 아나키스트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 1916년 1월 복고를 단행한 袁世凱의 帝制 기도는 3개월도 되기 전에 붕괴되었다. 그 해를 전후하여 吳稚暉·蔡元培·張繼는 중국으로 귀국하여 사회 활동을 재개하였다. 李石曾은 중국인의 프랑스 이주를 돕기 위해 프랑스에 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교육 운동-'教育을 통한 社會의 改良'-을 아나키즘 운동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新文化運動 시기 중국인의 유학 운동을 가장 열성적으로 추진한 인물은 李石曾이었다. 勤工儉學會를 조직한 李石曾의 의도는 노동자(工人)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동자 조직(工黨)을 건설하고 이를 통하여 아나키즘 세력을 발전시키려 한 것이었다.⁵³⁾ 여

52) 李石曾 吳稚暉 蔡元培 등이 편찬한 「勤工儉學傳」에서는 중국 사회를 대체로 貧富의 격차, 知力의 격차가 있는 모순된 사회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모순된 현대 사회를 개선하여 이루려고 한 이상 사회는 '各盡所能 各取所需'의 사회, 즉 아나키즘에서 이상으로 하는 無政府共產社會였다.

전히 정치 참여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로서는 새롭게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에게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아나키즘 선전을 교육 운동 차원에서 시도한 것이다. 吳稚暉도 1918년 3월 전문적인 노동자 선전 간행물인 『勞動』을 발간하여 勤工儉學과 工讀主義를 선전하였다. 그는 이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工黨의 건설은 勞動階級の 교육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노동자 스스로의 조직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⁴⁾

프랑스에 거주하던 李石曾은 1917년 중국으로 귀국하여 蔡元培·吳玉章 등과 더욱 발전된 형태의 勤工儉學運動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조직된 「留法勤工儉學會」는 과거와 달리 주로 젊은 지식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단체였다. 이 단체는 華法教育會와 함께 '勤工'과 '儉學'이라는 방식으로 학생과 지식인들을 프랑스로 유학시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게 하는 소위 留法勤工儉學運動을 전개하였다. 勤工儉學會는 留法勤工儉學會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華法教育會는 순수하게 留法勤工儉學會의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전한다.⁵⁵⁾

1919년 중국 내에는 10여 개의 留法準備學校가 설치되었고, 1920년에 이르러서는 천 명 이상의 학생이 留法勤工儉學會에 의해 유럽으로 보내졌다. 李石曾 등이 국내에서 아나키즘 소단체 조직이나 잡지의 발간을 지원하면서 留法勤工儉學會를 통하여 勤工儉學運動을 추진한 것은 師復 사후 강력한 구심점이 없었던 중국 아나키즘 운동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많은

53) 李石曾, 「與實社社員之談話」, 『李石曾先生文集』下, pp.231-232.

54) 吳稚暉, 「論工黨不興由工學不盛」, 『勞動』, 1호, 1918.3.20.

55) 江天尉, 「回憶留法勤工儉學」, 『五四運動回顧錄』下, p.994.

아나키스트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⁵⁶⁾

吳稚暉·李石曾·蔡元培 등은 留法勤工儉學活動에 참여한 것 이외에도 중국과 프랑스 양국에 대학을 건립하는 일을 추진하여 1920년 북경에, 1922년 리웅에 각각 中法大學을 설립시켰다. 북경의 中法大學은 李石曾이 董事長, 蔡元培가 董事 겸 校長, 吳稚暉가 董事였으며, 리웅의 中法大學에는 褚民誼가 副校長을 맡고 있었다. 특히 리웅의 中法大學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1920년 대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며, 이 학교의 운영에는 吳稚暉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新文化運動 시기 留法勤工儉學運動과는 별도로 아나키즘 교육 운동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서 잠시 당시 아나키즘 운동 가운데 하나였던 北京大學 아나키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蔡元培가 1917년 北京大學 교장이 되자 그는 李石曾을 생물학 교수로, 吳稚暉를 北京大學 학감으로 초빙하였다. 이들의 영향 아래 아나키즘은 北京大學에서 유행하였고, 1917년 이후 이 대학은 중국내 아나키스트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시 師復의 영향을 받은 黃凌霜·區聲白 등도 北京大學 학생이었다.

北京大學 내에는 民國 초기 進德會나 師復의 心社 등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進德會가 발족되었다. 蔡元培는 구시대 京師大學堂의 나쁜 습관을 타파하고 개인의 도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 조직을 구성하고 이전 進德會 규약과 유사하게 甲·乙·丙 세 가지 종류에 따라 계율을 나눈 뒤⁵⁷⁾ 개인 의사에 따라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이 단체는 대학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1918년 6월 성립 대회시에는 이미 교수 70여 명, 직원 90여 명, 학생 300

56) 朴濟均, 『五四期 無政府主義者の 理想追求運動』, 『1993년 秋季 東洋史學 研究發表會 要約文』, p.15.

57) 甲種은 妓女·賭博·妾을 금지하고, 乙種은 앞의 3가지 이외에 國會議員·官吏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丙種은 앞의 5가지 이외에 술·담배·고기를 금지하였다.

여 명이 가입하고 있었다.⁵⁸⁾

대학내 학생 조직으로서 1917년 아나키즘 단체인 「實社」가 조직되어 곧 부정기 간행물인 「自由錄」을 출판하였다. 이들은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하였다. 이 잡지의 주요 필자는 제2세대 아나키스트로 분류되는 黃凌霜·李震瀛·區聲白·華林 등이었다. 實社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는 '道德을 진보시키고 知識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實社는 그 후 民聲社·平社·群社 등 여러 아나키스트 단체들과 결합하여 1919년에 「進化社」를 만들었으며,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留法勤工儉學運動에도 참여하였다.⁵⁹⁾ 實社나 進化社와 같은 조직은 新文化運動 시기 대표적인 無政府共產主義 단체였다. 또한 黃凌霜·朱謙之 등에 의해 편집되었던 『北京大學學生週刊』에는 크로포트킨뿐만이 아니라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인 슈티르너와 관련된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한편 軍閥政治 시기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은 工讀互助運動⁶⁰⁾이나 新村主義運動에도 참가하여 청년 학생들에게 工과 學의 결합을 강조하고 勞動을 신성시하는 새로운 풍조를 일으켰다. 당시 '互助'·'工讀'·'平民'·'各盡所能, 各取所需' 등의 유행어는 중국 사회에 대한 아나키즘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인 陳獨秀·李大釗·毛澤東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

58) 蕭超然, 『北京大與五四運動』(北京大學出版社, 1986), pp.82-84.

59) 黃凌霜은 進化社의 기관지인 『進化』의 창간사에서 李石曾이 『新世紀』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Revolution(혁명)은 Re-Evolution(진화의 연속)이다'는 해석을 재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잡지를 소개하였다(黃凌霜, 『本志宣言』, 『資料選』, 上, p. 381).

60) '工讀主義運動이 아나키즘 운동인가'에 대한 논쟁은 일본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소개로는 坂井洋史, 『近年の中國アナキズムの研究おめぐって』(『中國社會と文化』, 東大中國學會, 1988)을 참고.

다.

중국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은 新文化運動 시기 공생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창당을 전후로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해 아나키즘-불세비즘 논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1920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의 정치 세력이 급속하게 확대되자, 중국 아나키스트는 지식인과 노동자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軍閥 정권들의 아나키스트에 대한 탄압과 서구 아나키즘 운동의 급격한 쇠퇴는 그들의 활동에 더욱 많은 제약을 안겨 주었다.

이렇듯 국내외 환경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北京政府가 留法勤工儉學生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하자, 프랑스의 華法教育會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1921년 2월 28일에는 유학생들이 프랑스 주재 중국 공사관을 포위하고 생존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華法教育會는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개교를 준비하던 리웅의 中法大學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으로 얼마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⁶¹⁾ 吳稚暉와 褚民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만을 불러 일으켰다. 유학생 내부의 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간의 갈등이 吳稚暉 등에 대한 대결 양상으로 나타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였다.

10여 년 동안 전력을 기울였던 留法勤工儉學運動의 개혁 흐름이 좌절되고 리웅의 中法大學조차 학생들의 데모로 난항을 겪게 되자, 吳稚暉·李石曾 등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교육을 통한 중국의 개혁을 지향하였으므로 교육 사업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교육 사업은 초기 이상에서 현저히

61) 江天樹, 「回憶留法勤工儉學」, 『五四運動回顧錄』 下, pp.945-947.

후퇴한 형태로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해지자 교육 운동의 지속을 위해 정치 권력에 의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다.

(2) 吳稚暉와 沈仲九의 '國民黨' 가입 論爭(1924)

1924년 1월 20일 國民黨改組가 실시되어 廣州에서 中國國民黨 제1차 全國代表大會가 열렸다. 孫文은 吳稚暉·李石曾·張繼 등 5인을 中央監察委員으로 임명하고, 蔡元培 등 5인을 中央候補監察委員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張靜江은 胡漢民·汪精衛·戴季陶 등 24인의 中央執行委員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젊은 아나키스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존경받고 영향력 있었던 원로 아나키스트 吳稚暉와 李石曾이 정당에 가입하였고, 아나키즘 성향이 강한 蔡元培·張靜江·張繼 등이 집단적으로 현실 정치 무대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의 원론적인 정당관을 부정한 이런 현상은 곧바로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논쟁의 시발은 華林的 서신에 대한 吳稚暉의 반박에서 비롯되었고, 沈仲九의 비판이 이어졌다.

1924년 봄 華林은 張繼에게 글을 써서 '당신이 아나키스트라면 어떻게 國民黨에 가입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吳稚暉에게도 글을 써서 胡漢民이 '吳稚暉·李石曾·張繼 등이 아나키스트로서 國民黨에 가입한 것은 아나키스트와 國民黨의 합작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吳稚暉에게 자신의 태도를 명백하게 보이고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⁶²⁾

吳稚暉는 華林的 편지와 자신의 「致華林書」를 上海의 「國民日報」에 연재하여 공개적으로 華林的 비판에 대응하였다. 그는 國

62) 吳稚暉, 「致華林書」중 華林的 편지, 『吳稚暉先生文粹』四, p.213.

民黨에 가입한 것이 '主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목적은 아나키즘 혁명의 실현에 있다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 吳稚暉는 불이나 재가 되어도 國民黨員이요, 동시에 無政府主義를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國民黨을 오래 전부터 革命黨이나 急進黨의 하나로 승인하였고, 이런 진보적인 정당인 國民黨에 아나키스트가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변호하였다. 그는 '派'와 '黨'을 따로 구별하지 않음으로서, 同盟會와 國民黨을 동일한 조직으로 보았고, 아나키스트가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오히려 하루 빨리 다른 아나키스트들이 國民黨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먼저 國民革命을 완성시킨 후에 아나키즘 혁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였다.⁶³⁾

『致華林書』에서 그의 주장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強國說로, 아나키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물질적 조건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업의 발전, 교육의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은 제국주의가 횡행하는 현재의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며 강력한 정부 통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國民革命'이 성공하여 '政治革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국가가 강대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물질 조건이 갖추어져서 아나키즘 혁명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段階說로, 아나키즘 사회는 곧바로 실현되지 않으며 그 사이에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君主制에서 共和制로 옮겨가는 것은 그 한 단계이며, 현재는 민주주의에서 노동자 독재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혁명 단계마

63) 吳稚暉, 『致華林書』, 『吳稚暉先生文粹』, 四, pp.213-221.

다 그 혁명의 목적을 잃지 말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아나키즘 혁명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혁명적 순수성을 지키면서, 현재의 國民革命 단계에 발맞춰 國民黨의 혁명 노력을 지지하면 점차 혁명의 진보를 가져와 아나키즘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共同敵人說로, 아나키스트와 國民黨(共產黨)은 공동의敵, 즉 軍閥이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단결하여 공동의 적을 타도하는 것이 바로 '國民革命'의 임무이며 이것은 모든 혁명가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았다. 吳稚暉는 1920년대의 國民黨은 새로운 국민당이며 혁명에 공감하는 정당으로 인식하였다. 만일 훗날 國民黨이 진보적 요소를 잃으면 그 때 대항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吳稚暉는 이것을 '毒으로 毒을 공격하는 법'이라는 말로 묘사하였다.

吳稚暉의 답장 내용은 자신들의 國民黨 참가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나키스트 집단의 행동이며, 國民黨改組를 기점으로 다른 아나키스트들도 國民革命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國共合作의 실현은 吳稚暉로 하여금 安國合作(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의 의도를 받아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로포트킨이 러시아 革命을 지지한 것과는 달리 吳稚暉 李石曾 등은 1920년대 중반 점차 國民黨측의 혁명론을 지지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중국 아나키스트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國民革命 찬성파와 國民革命 반대파로 나누어졌다.

한편 吳稚暉의 國民革命 참가 주장에 대해 다수의 아나키스트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民衆」, 「民鋒」, 「前途」, 「自由人」 등의 간행물에 여러 글들을 발표하여 吳稚暉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鐵鳥라는 필명으로 쓴 「無政府主義與國民黨」에서는 吳稚暉가 아나키스트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吳稚暉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⁶⁴⁾ 이 글에서 저자는 ‘吳稚暉가 『新世紀』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진정한 아나키스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까지 하였다. 賈維도 吳稚暉를 ‘無政府主義 이론에 門外漢’이라는 말로 비난하였다.⁶⁵⁾

특히 『自由人』의 沈仲九는 國共合作 시기를 즈음하여 ‘無政府主義者가 國民黨에 가입할 수 있는가?’를 통하여 吳稚暉의 주장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⁶⁶⁾

沈仲九는 吳稚暉의 ‘強國說’을 반대하여, 국가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나키즘 혁명에 대한 강력한 敵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국가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사실 192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었으나 아나키스트는 민족주의를 平民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인식하고 이에 적대적이었다. 아나키스트 역시 反帝를 주장하였으나 反帝의 성공은 민족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붕괴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는 또 ‘段階說’을 반대하여, 이 주장은 억지라고 비판하였다. 세상에는 본래 역사 발전의 필연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國民革命과 아나키즘 혁명은 서로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吳稚暉의 민주주의로부터 노동자 독재로 가는 것이 아나키즘으로 향한 과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는 ‘共同敵人說’ 역시 반대하여, 이것은 아나키즘 이론을 왜곡한 것이며, 아나키스트는 어떤 형식의 정부에도 반대하므로 國民黨 정부 또한 아나키즘 혁명의 타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아나키스트에게는 軍閥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도 모두 적일 뿐이라고 보았고 國

64) 鐵島, 「無政府主義者與國民黨」, 『資料選』下, pp.763-764.

65) 賈維, 「吳稚暉의 無政府主義」, 『資料選』下, pp.790-794.

66) 沈仲九, 「無政府主義者可以加入國民黨嗎?」, 『資料選』下, pp.771-789.

民黨이 혁명 정당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沈仲九는 이처럼 吳稚暉의 安國合作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國民黨과 三民主義를 공격하였다. 國民黨에 대하여 그는 “國民黨의 전신인 同盟會는 하나의 혁명 정당으로 그 목적이 전제 제도의 전복에 있었으므로 民國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民國 성립 이후 國民黨은 이미 혁명성을 상실하여 軍閥간의 이권 쟁탈에 빠졌다”고 하며, 오늘날의 國民黨은 ‘升官發財적인 政黨’에 불과하고 주장하였고, 國民黨改組 이후 성립된 國民黨의 조직 제도가 진정한 민주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國民黨 영도의 國民革命에 반대하였다.⁶⁷⁾

또한 그는 三民主義에 대해서도 먼저 三民主義를 孫文의 독창적인 이론임을 부정하고, 國民黨의 民族主義가 同盟會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排滿革命論식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당시에는 실현될 수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중국의 자산 계급에 유리할 뿐 평민과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고 보았다. 그의 三民主義 비판 내용은 당시 三民主義·社會主義·共產主義의 구분이 모호했던 시기에 이들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沈仲九의 앞의 주장은 吳稚暉가 ‘同盟會라는 혁명 정당 성격을 國民黨이 이어 받았다’거나 혹은 ‘三民主義는 아나키즘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吳稚暉는 아나키스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장과 연설 중에 安國合作의 정치 주장을 견지하여 상당수의 아나키스트들을 國民黨과의 合作에 끌어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政黨參與論爭은 사실상 吳稚暉측의 승리를 가져와 安國合作의 실행

67) 沈仲九, 앞의 글, pp.775-784.

이 객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논쟁의 당사자인 沈仲九를 비롯하여 上海 지역의 대부분 아나키스트는 1927년 무렵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國民黨에 협력하게 되었다.

이 논쟁은 아나키스트에게 주어진 문제, 즉 '원칙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진보 세력에 합류할 수도 있는가?'라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표면화시킨 사건이었다. 아나키스트들이 어떻게 國民黨과 國民革命에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는 훗날 北伐의 성공에 따라 일부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다시금 아나키즘 이상과 실제의 관계 문제로 제기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吳稚暉·李石曾 등의 國民黨 가입 원인이 吳稚暉 자신의 앞의 발언 이외에도 192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약화되기 시작한 중국내 아나키즘 운동의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留法勤工儉學運動, 工讀互助運動, 新村主義運動 등 여러 가지 아나키즘 성향의 사회 운동들이 차례로 실패하고, 마르크스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노동자 지식인 계층 내의 아나키즘 지지 세력이 분열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나키스트 세력을 결합하기 위한 강력한 구심점으로 國民黨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교육 운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平民'의 존재에 주목하여 이들을 하루 빨리 계몽시킴으로서 중국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램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과거 오랜 기간동안 기존 국가나 정당의 도움 없이 교육 운동에만 전념하던 그들이 民間 차원의 교육 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정치 권력을 이용한 政府 차원의 근본적인 교육 제도 개혁을 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軍閥 정권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지 않았던 그들로서는 새롭게 혁명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는 國民黨에 기대를 걸었을 것이며, 더욱이 『新世紀』시절 이후 계

속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던 孫文의 國民黨과의 合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吳稚暉와 李石曾 이 중국의 교육 제도 전반 걸친 개혁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던 사실은, 國民黨 가입 직전 吳稚暉와 李石曾에 의해 집중적으로 쓰여진 중국의 교육 제도 개혁 논의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吳稚暉는, '無政府主義는 도덕을 기초로 하며 파괴를 좋아하지 않으나 만약 파괴가 필요한 때에는 敎育으로 성취해야지 레닌식의 독재와 강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⁶⁸⁾ 그의 교육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國民黨 가입 시기에 쓴 「二百兆平民問題最輕便的解決法」이라는 장문의 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중국의 축적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敎育이라고 천명하고,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평민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교육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⁶⁹⁾ 또한 「中國之社會敎育應兼兩大責任」에서 미래의 중국의 교육 제도는 학교 교육을 補習科로 하고, 사회 교육을 本科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⁷⁰⁾ 「海外中國大學末議」에서는 해외 대학의 필요성 및 유학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였다.⁷¹⁾

李石曾과 蔡元培의 경우, 프랑스의 교육 제도를 중국에 도입하려는 구체적인 동기가 國民黨 참여의 중요한 한 이유로 보인다. 예를 들어 李石曾은 「法國敎育與我國敎育前途之關係」⁷²⁾에서 프랑스의 교육 제도는 自由·平等·博愛의 정신에 기초한 훌륭한 것으

68) 吳稚暉, 「致華林書」, 『吳稚暉先生文粹』 四, p.215.

69) 吳稚暉, 「二百兆平民問題最輕便的解決法」, 앞의 책, pp.1-44.

70) 吳稚暉, 「中國之社會敎育應兼兩大責任」, 앞의 책, pp.66-67.

71) 吳稚暉, 「海外中國大學末議」, 앞의 책, pp.46-66.

72) 李石曾, 「法國敎育與我國敎育前途之關係」, 『李石曾先生文集』 上, pp.231-236.

로 인식하여 그것을 중국 교육 제도의 기본으로 삼도록 건의하였으며, 특히 그들 대학 제도가 지닌 장점들을 열거하였다. 蔡元培 역시 「教育獨立議」⁷³⁾에서 프랑스의 교육 행정 제도는 정당이나 교육부와 같은 중앙 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것을 본받을 것을 제의하였다.⁷⁴⁾ 사실 그들은 프랑스 교육 제도를 '政治와 教育을 분리'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 모델로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제도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진보적인 교육의 한 모델이라고도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의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4. 國民政府 시기 吳稚暉 李石曾의 아나키즘 활동

國民黨 가입 당시 吳稚暉와 李石曾是 中央監察委員會 위원이었다. 그들은 1925년 孫文의 와병 중에 北京政治委員會의 위원으로 중요 업무를 관장하였고, 淸宮善後委員會에서 책임자로서 故宮博物館 보호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당시 吳稚暉는 國語改革을 주장하여 이에 관련한 많은 글을 발표하였고, 李石曾是 中法教育基金委員會에 참여하였다. 吳稚暉와 李石曾是 모두 1926년 中國國民黨 제2차 全國代表大會에서 연임되었다. 張靜江·蔡元培·褚民誼도 吳와 李처럼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⁷⁵⁾

蔣介石 정부의 北伐에 동참하던 吳稚暉·李石曾 등은 1927년 4

73) 蔡元培, 「教育獨立議」, 『蔡元培全集』4, pp.177-179.

74) 王雲五 主編, 『民國李石曾先生燭瀛年譜』(臺北, 商務印書館, 1980), p.39.

75) 張靜江은 1926년 8월 中央執行委員會 常務委員會 主席, 蔣介石 北伐時에는 臨時主席, 北伐後에는 浙江省 臨時 主席, 1928년 2월 南京臨時政府 성립후에는 全國建設委員會 主任, 1928년 11월 浙江省 正式主席 등 고위관직을 역임하였다. 褚民誼도 1924년 귀국후 廣東大學 교장, 國民黨 中央候補執行委員, 教育行政委員會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蔡元培는 1926년 당시 浙江省 政治分會委員이었다. 필자는 파리 아나키스트들이 國民黨 고위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로 그들을 지지하는 아나키스트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월 2일 「致中央監察委員會請查辦共產黨案」에서 '공산당의 계급 투쟁론은 중국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은 北伐을 방해하며 반역을 준비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⁷⁶⁾ 같은 날 國民黨 中央監察委員會가 上海에서 蔡元培를 主席으로 긴급 소집되었는데, 이 때 吳稚暉는 공산당이 국민당내의 좌파와 연결하여 모반을 기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제출한 여러 문건들은 蔣介石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결국 1927년 4월 12일에 蔣介石이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하자 武漢에 있던 정부와 별도로 南京國民政府가 수립되었다. 이 사건은 南京政府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정치 세력 가운데 아나키스트 계열인 吳稚暉와 李石曾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특히 蔡元培와 李石曾 등은 南京政府가 그들에게 교육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바램은 곧 현실화되었다.

1927년에 李石曾과 蔡元培는 國民政府 教育行政委員會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中央政治會議에서 中央研究院 건립을 결의하자 李石曾·蔡元培·張靜江 등이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해 6월 大學區制가 의결되었고, 7월 大學院組織法이 공포되었으며, 10월 蔡元培가 대학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체계적인 교육 개혁 조치가 이어졌다. 이 때 李石曾과 蔡元培의 건의로 프랑스 학제를 도입하여 大學區를 교육 행정의 기본 단위로 만들었으며 대학원에는 대학위원회가 조직되었다.⁷⁷⁾ 먼저 北京·江蘇·浙江 등의 지역에 大學區를 설치하였고 각 省의 대학 교장이 大學區내 교육 행정을 담당토록 하였다. 蔡元培는 1928년 4월 國立中央研究院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李石曾도 1928년 8월 北京(北平)大學

76) 吳稚暉, 「請查辦共產黨案」, 『吳稚暉先生文粹』, 一, pp.1-7.

77) 王雲五 主編, 『民國李石曾先生燦爛年譜』, pp.53-72.

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다음 해 8월 北平研究院이 설립되자 院長으로 초빙되었다.

어느 논문에 따르면, '당시 民國四老는 新教育制度의 제창자로 교육계의 주요 요직이 모두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 예로 浙江大學區의 책임자인 張夢麟은 蔡元培의 학생이었고, 勞動大學 교장 易培基는 李石曾의 친척이었으며, 中央大學區 책임자인 張乃燕은 張靜江의 조카였다고 한다. 또한 大學院 행정 기관 책임자인 孫撥鈞 역시 吳稚暉의 친구였다는 사실들을 들고 있다.⁷⁸⁾ 이를 보더라도 南京國民政府의 교육 정책이 民國四老의 권력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蔣介石 정부의 '黨化教育' 입장과 蔡元培 등의 '教育獨立論'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후에 大學院 폐쇄 조치와 大學區制 폐쇄 조치로 이어져 그들의 교육 개혁 운동에 제동이 걸렸다.

國民政府에서 吳稚暉·李石曾 등의 교육 개혁 운동이 아나키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은 上海 勞動大學의 건립 과정에서 수도 확인할 수 있다.

1927년 4월 중순 李石曾·吳稚暉·華修勻 등은 上海에서 집회를 갖고 '아나키즘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였다. 이 때 吳稚暉와 李石曾은 勤工儉學運動과 유사한 방식을 띤 知識과 勞動의 결합을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上海 勞動大學의 건립이 결정되었다. 이 대학은 新文化運動 시기부터 전제된 工讀互助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정식 창립된 대규모의 실천 단체였다.⁷⁹⁾ 전국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李石曾과 蔡元培의 정

78) 陳哲三, 『中華民國大學院研究』, p.72.

79) 上海 勞動大學은 유럽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대학을 모방한 것으로, '學校의 農場과 工場化, 農場과 工場의 學校化'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勞動大學의 아나키즘 경향에 대해서는 Dirlik의 글을 참고 (Arif Dirlik, The Revolution That

치적 영향력 아래 上海 勞動大學은 단시일만에 성립할 수 있었다.

勞動大學은 1927년에 정식 개학하였는데, 이 곳에는 적지 않은 아나키스트가 교직이나 학생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대학 교장은 易培基가 임명되었으며, 과거 吳稚暉와 논쟁을 벌였던 『自由人』의 주필 沈仲九가 勞動大學 소속의 勞工勞農學院의 원장이었다. 그 밖에 교원으로는 吳剋剛·沈仲九 등과 같은 중국인 아나키스트는 물론 프랑스인 자끄 르끌뤼(Jacques Reclus), 일본인 岩佐作太郎·石川三四郎 등과 같은 아나키스트가 참여하였다. 이 대학은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의 조화', '平民教育', '教育과 政治의 분리' 등 아나키즘 교육 사상의 원리가 반영된 대학이었으며, 사실상 1920년대 말 중국 아나키스트들의 집결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⁸⁰⁾

당시 李石曾은 '三民主義를 手段으로 無政府主義를 目標로 한다'는 安國合作의 주장으로 아나키스트의 國民黨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다.⁸¹⁾ 그는 1927-28년 사이 吳稚暉를 대신하여 아나키스트와 國民黨의 합작을 여러 방면에서 방어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왜냐하면 吳稚暉가 지나치게 蔣介石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1928년 蔣介石의 공산주의 노동 운동 탄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國民黨내의 아나키스트에게조차 아나키즘 지도자로서의 상징성은 크게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國民黨 가입을 거부하고 있던 아나키스트들에게 모두 거짓 無政府主義者로 비취치고 있었던 것이다.⁸²⁾

Never Was, *Modern China*, 1989, pp. 433-440.).

80) 華修勻, 「我信仰無政府主義的前前後後」, 『資料選』下, pp.1030-1034.

81) 陳登才, 「訪問范天均先生的記錄」, 『資料選』下, p.1043.

82) 中國少年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 「中國少年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聲明書」, 『資料選』下, pp. 811-812.

아나키스트와 國民黨의 합작이 본격화되면서 國民黨내 아나키스트들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자신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당관의 창출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革命週報』를 통해 수행되었다. 『革命週報』는 앞의 上海 집회에서 勞動大學 건립과 함께 결정된 사항으로 1927년 5월 정식으로 창간되었다. 이 잡지는 李石曾이 國民黨의 자금으로 만들었으며 초대 주필은 沈仲九(후에 華修勻)였다. 『革命週報』는 아나키즘과 三民主義의 관계를 社會革命과 國民革命의 관계로 파악하고 아나키스트와 國民黨의 연합의 필요성을 선전하였다. 그러나 점차 國民黨 보수파의 언론 자유 통제 정책에 반대하여 勞農運動에 대한 전면적인 아나키즘 선전을 시도하였다.⁸³⁾

李石曾은 『革命週報』 등에 「現在 革命的意義」와 「나의 政治哲學중 黨派觀」을 발표하여 아나키스트의 三民主義 해석을 정의하고, 國民黨 아나키스트의 共產主義를 반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는 「現在 革命的意義」⁸⁴⁾에서 역사상 혁명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인 君主革命은 1898년 개혁 운동으로 달성된 혁명이다. 두 번째 단계인 民主革命은 서구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으로, 중국의 경우 1911년 辛亥革命으로 각각 성취되었다고 보았다. 세 번째 단계인 階級革命은 레닌의 러시아 혁명과 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중국 武漢政府의 러시아화 정책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 民生革命이 바로 현재 진행 중인 혁명을 말하는데, 서구의 경우 푸르동이 주장한 '新世紀' 혁명이며, 중국의 경우 孫文이

83) 李興芝, 「革命週報與安國合作」, 山東大學文科論集, 1983. 1期 참고.

84) 李石曾, 「現今革命之意義」, 『李石曾先生文集』上, pp.236-248.

주장한 三民主義 革命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李石曾의 논리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퇴보적인 세력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혁명은 이미 3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혁명에서는 共產主義者에 대항하기 위해 三民主義者와 아나키스트가 연합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계급 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주의, 중앙 집권제, 권력 탈취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李石曾의 「나의 政治哲學中 黨派觀」⁸⁵⁾에서는 중국의 학파를 法家·儒家·道家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法家は 霸道政治이자 強權政治를 말하는데, 중국의 경우 李斯·商鞅·秦始皇, 서양의 경우 파시스트나 러시아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에 각각 비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儒家는 王道政治이자 平和政治로 규정하였다. 과거 중국의 堯·舜·周·孔子이나 서양의 민주주의 정신이 이러한 것들이고, 현재에는 孫文의 三民主義와 루소의 정신이 이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道家는 人道政治로 無治를 말하는데, 중국 고대의 아나키즘, 즉 老莊思想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서양의 톨스토이나 르끌뤼의 사상에 비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儒家와 道家의 合作을 통한 法家の 극복을 희망하였다. 이것은 傳統主義적 해석에 따라 혁명 이론을 재구성한 것이다. 결국 李石曾의 이 문장은 共產主義는 나쁜 것으로, 三民主義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아나키즘은 가장 이상적인 사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李石曾은 이러한 이론적 해석을 기초로 世界革命이란 부르동주의를 통한 마르크스주의 타도, 中國革命이란 삼민주의를 통한 공산주의 타도라는 구도 아래 아나키즘과 삼민주의의 합작으로 공산주의에 공

85) 李石曾, 「政治哲學中之黨派觀」, 『革命週報』 24호, 1927. 10. 9. (『資料選』下, pp.816-819.)

동 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1927년 李石曾이 푸르동의 아나키즘을 주장한 것은, 새로운 정치 조직으로 재편하자는 푸르동의 주장이 총체적인 사회 변혁을 이룩하자는 크로포트킨의 주장보다 중국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푸르동이 정치가였다는 사실 자체가 國民黨員인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吳稚暉는 여전히 三民主義로 國民黨을 건설하는 것이 아나키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량이라고 믿고 있었다. 특히 그는 三民主義의 핵심은 民生主義에 있으며, 民生主義가 충실히 실행되어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 無政府 大同社會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하였다. 1928-29년 吳稚暉는 '全體 人民의 革命'을 주장하였다.⁸⁶⁾ 그는 '혁명이란 한 두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식인·노동자·농민·상인 계층을 포함한 전체 인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孫文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國民黨 좌파의 계급투쟁론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의 '全體革命論'은 아나키즘 운동을 통제하는 자가 당착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다.

게다가 1920년대 말 國民黨내 아나키스트의 아나키즘 경향을 보여주는 『革命週報』의 주요 논조--個人改造를 통한 社會改造, 安國合作과 共同反共, 聯邦制 주장--는, 共產黨과 國民黨 左派는 물론 黨 중심의 국가 통합을 추구하는 國民黨 右派 어느 쪽에게도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그 결과 아나키즘 활동이 점차 國民黨의 강령 아래 놓여지게 되면서 아나키스트의 계급 투쟁에 대한 반대 주장은 오히려 國民黨내 아나키즘 활동에 대한 제약 요인

86) 1929년 吳稚暉는 無政府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한 三大革命을 제창하였는데, 教育革命·物質革命·生育革命이 그것이다. 그는 三大革命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제로 科學의 발달을 강조하였다(吳稚暉, 「讀了汪先生『分共以後』的敍言」, 『吳稚暉先生文集』, 一, pp.117-118).

으로 작용하였고 나아가 아나키스트에 대한 탄압의 빌미로 제공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⁸⁷⁾

아나키즘의 조직적 활동은 1928-29년을 기점으로 점차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李石曾과 蔡元培의 '政黨과 敎育의 分離'시도는 1928년 大學院 폐쇄와 1929년 大學區 폐쇄 결정으로 실패하였고, 이즈음 蔡元培는 國民黨과의 협조 관계를 사실상 끊었다. 勞動大學도 미국식 교육을 주장하는 당내 교육가들의 반발로 유명무실화되었다. 蔣介石과 吳稚暉·李石曾의 관계도 1928년 蔣介石 정부의 대중 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게 되었다. 國民黨 고위층에서는 이들에게 과격한 발언을 삼갈 것을 경고하였다. 또한 점차 國民黨내에서는 공산주의자를 대하는 시각으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아나키즘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아나키즘 노동 운동 등이 점차 무력화되었고, 언론 자유를 주장하던 『革命週報』도 출판 2년 후 國民黨내 보수 세력의 반발에 밀려 1929년 9월 스스로 정간하였다.

요컨대, 제1세대 아나키스트 吳稚暉와 李石曾의 '國家' 및 '政黨' 인식의 변화 과정은 ① 『新世紀』 시절, 反國家 反政黨의 이론 선전 단계 ② 辛亥革命 시기, 民國이라는 國家 체제는 승인하되 官僚가 되지 않겠다는 不官主義 원칙을 실천하는 단계 ③ 國共合作 시기, 國民黨에 가입함으로써 國家는 물론 政黨 정치에 참여하는 단계까지 모두 세 가지 단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울러 '敎育을 통한 革命' 주장--> 民間 차원의 교육 운동--> 政府 차원의 교육 제도 개혁 운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敎育運動의 발전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도 알 수

87) Arif Dirlik,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pp.276-278.

있었다. 그들이 현실 정치에 점점 접근해 가는 모습 속에서 동시에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교육 개혁을 통하여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아나키스트들이 政府와 政黨을 이용하여 아나키즘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던 이 같은 노력들은 불과 2-3년만에 뚜렷한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革命運動의 獨自性 상실만을 가져온 채 실패하고 말았다.

맺음말

필자는 『新世紀』의 분석을 통하여 李石曾의 革命段階論이나 吳稚暉의 教育을 통한 革命論의 주장 속에는 이미 혁명을 개혁이나 진보와 동일시하는 그들 특유의 아나키즘 해석이 담겨 있으며, 이런 사상적 요소들이 辛亥革命 이후 民國의 정치 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民國 성립 직후 新世紀派가 만든 進德會나 留法儉學會의 조직을 통해 그들이 선택한 운동 방식이 『新世紀』 시절의 활동을 이어받은 '道德과 教育을 통한 改革'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1913년 吳稚暉와 師復의 1차 논쟁은 이러한 혁명 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袁世凱에 의해 얼마간 중단되었던 파리 아나키스트의 교육 운동은 新文化運動 시기 다시 李石曾과 吳稚暉의 勤工儉學運動, 中法大學 설립 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 운동들은 정부나 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회를 개혁하여 아나키즘 이상에 다다르려는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운동이 차례로 실패하자 그들은 이론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던 孫文의 國民黨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

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즉 國民黨의 힘을 빌어 제도적인 차원의 교육 개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1924년 國民黨 가입을 계기로 다시 벌어진 2차 논쟁에서 吳稚暉는 國共合作과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와 國民黨의 합작도 필요하다는 논지를 펴는 동시에, 國民黨의 三民主義와 아나키즘의 유사성을 재차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인 합리화를 시도하였다. 게다가 그는 아나키즘과 정당 가입 문제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단 國民黨에 가입한 아나키스트들은 정당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革命週報』의 내용은 그들의 변화된 정당관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 개혁이나 安國合作論 이외에도 李石曾의 혁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크로포트킨식 논리에서 푸르동식 논리로의 후퇴는 정당내 아나키즘 활동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新世紀派 아나키스트들은 이미 『新世紀』 시절부터 기본적으로 아나키즘 혁명이 단기간에 성취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혁명 방법은 '教育'이라는 대안이었으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개조와 개인의 개조를 통한 사회의 개조라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은 기존 정치나 정당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新世紀』 시기부터 1920년대까지 新世紀派의 모든 활동이 그들 나름대로 아나키즘의 동기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교육 운동 및 노동 운동 등 여러 측면에서 이 정치 집단의 운동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南京政府 내의 이른바 四老(吳稚暉·李石曾·蔡元培·張靜江)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